"아이가 3살 때 자폐진단을 받았습니다."

- 자폐증을 앓고 있는 서연(가명)이와 우울증에 걸린 엄마의 이야기.

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아이와는 어딘가 달랐던 서연이는 3살 때 자폐진단을 받았습니다. 단란했던 가정은 그 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.

서연이의 아버지는 집에 오는 것이 싫어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결국 외도로 가정을 버렸습니다.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에 속아 위장이혼인 줄 알고 이혼을 했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 아버지는 어린 서연이와 엄마를 쫓아냈습니다. 갈 곳이 없어진 모녀는 외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.

아이의 자폐진단과 남편의 배신으로 연이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여러 번 자살시도도 했습니다.

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서연이는 말도 느리고 불안증세로 벽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머리카락을 쥐어 잡는 등 자해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.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이웃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지속적인 권유로 최근, 어머니와 서연이는 상담치료를 시작했습니다. 다행히도 치료를 통해 모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

>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도약을 시작한 이 모녀가 지속적인 치료로 마음의 상처와 장애를 치유해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.



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서연이의 치료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됩니다.

후원문의 : 🕿 02-3396-1004